

피키오
지민동모드

피노오치켄
PINO OCHIKEN

대성반점
794-7813 796-8537



한다.

혜화동의 필리핀 장터가 서울시내 중심가에 이룬 '이국적인' 풍경을 일시적으로 끼워 넣는다면, 그런 풍경이 불박이로 붙어 있는 곳으로는 이태원이 있다. 미군부대 주변에 생겨난 이태원의 다문화 풍경은, 몇 년 전부터 성적소수자들도 가세해 아파트단지와 주상복합건물로 서울을 뒤덮어



데이비드 켈리 'Three Reading' (2008, 싱글채널 비디오)

버리는 난개발의 소용돌이에서, 독특한 문화 '영토'로서 살아남고 있다. 각종 숭과 레스토랑, 와인바, 재즈클럽 등이 관광객과 내국인 손님들을 부르고 있는 이태원 큰길을 지나 구멍가게와

공터, 슬래브 집 옥상들이 이어지는 동네 뒷골목에서는 무슬림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드높다. 하지만 빈 상점들 사이로 적지 않은 부동산업체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도 재개발의 토네이도를 쉽게 피하진 못하겠다. 이 슬람사원 주변의 주택가에 위치한 문화공간 '도배박사'와 '대성반점'에서 열린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마주한 옛날 동네 풍경은 그랬다.

문화공간이라고는 했지만 '도배박사'와 '대성반점'은 특별한 공간의 성격을 덧붙이기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상점 간판 자국도 그대로 둔 채 인테리어만 간단히 털어낸 후, 시멘트벽과 바닥에 전시를 하는 곳이다. 지금 여기서 열리고 있는 'OUT THE INSIDE' 전(새달 9일까지)은 미국 이민 1.5세대 작가인 민영순이 기획한 것으로, 토종(?) 미국인, 베트남 보트피플, 한국 입양아 등 다국적 정체성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작가들의 개별 작품도 흥미롭지만 작품이 놓여 있는 허름한 전시장과 그 주변지역의 재개발 직전 풍경이 한데 뭉뚱그려져서, 이 전시는 어떤 럭셔리한 갤러리의 스펙터클한 전시보다도 임팩트가 강하다.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윤리는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보는 것 그 자체가 윤리인가 보다. 무얼 보냐고? 레비나스는 타인의 고통을 보자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가까운 과거의 스스로를 봐야 할 것 같다. 이주노동자들이 점유하는 혜화동 장터나 3세계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이태원 뒷골목의 문화적 풍경은, 개발이기주의와 토건제일주의의 기세에 눌러 멍청하게 놓쳐 버린 우리 자신의 그것이니 말이다. 아르코미술관 관장